



문서번호 참연20130703

수 신 성 김 주한미국대사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미국 정보기관의 주미한국대사관 도청'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날 짜 2013. 7. 3. (총 2 쪽)

'미국 정보기관의 주미한국대사관 도청'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1994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입니다.
2. 귀 대사께서도 알고 있겠지만, 지난 6월 30일 영국의 '가디언', 독일의 '슈피겔' 등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이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문서를 근거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 건물과 미국 주재 EU 사무실, 그리고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표적삼아 도청이나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을 경악시킨 일입니다.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수집을 시도한 곳 중에는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한미 수교 6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시도와 관련한 언론보도만으로도 한국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 참여연대는 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귀 대사가 한국의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과 우호 증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3년 6월 30일 영국 가디언 등을 통해 보도된 미국 정보기관의 각국 대사관 등에 대한 도청 등을 이용한 정보수집 행위와 관련하여 :

- 1) 주미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는지
- 2)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도했는지, 확



참여연대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꿔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동인동)

보하려고 했거나 확보한 정보들은 무엇인지, 불법적인 정보수집에 관여한 기관과 책임자들은 누구인지

3) 가디언 등의 언론보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4. 구체적이고 가급적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